



유네스코 세계 유산의 날(UNESCO World Heritage Day).

스위스에 있는 총 11 개의 세계 유산 등재지로 놀러 오세요

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해 방문객 맞을 채비 갖춰

알볼라 철도 박물관 주변 축제

란트바쎄 익스프레스 타고 최고의 철교 감상

수도원 합창과 수도원 비스트로 체험

빙하 가이드 투어까지

2024 년 6 월 8 일 - 9 일

스위스 세계 유산 체험(World Heritage Experience Switzerland: WHES)과 유네스코 스위스 위원회가 함께 세계 유산의 날을 주관하게 되었다. 스위스에는 세 곳의 자연유산과 여덟 곳의 문화유산이 등재되어 있다. 수 세대에 걸쳐 각 세계 유산은 정통성과 그 우수성, 다양성을 갖추고 스위스다운 정체성과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 보여 주고 있다.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세계 유산의 날 행사가 다음과 같이 열린다.

알볼라(Albula)/베르니나(Bernina) 구간 철도를 운영하는 래티쉬반(Rhätische Bahn)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의 날을 기념해 여행자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맞이한다. 베르귤(Bergün)에 있는 알볼라 철도 박물관 주변에서의 축제, 알볼라 철도 박물관 무료입장 및 무료 가이드 투어, 어린이 및 가족 위한 게임, 기차 차량 전시, 음악 및 축제 음식 등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.

5 월 11 일부터 운행하는 꼬마 기차, 란트바쎄 익스프레스(Landwasser Express)를 타면 란트바쎄 고가 아래에 있는 전망대까지 편리하게 가볼 수 있다.

생갈렌(St. Gallen)의 수도원은 '중세부터 미래까지: 세계 유산이 어떻게 복원되고 보호되는가'라는 주제로, 가이드 투어를 비롯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.

알레취 빙하(Aletschgletscher)에서는 세계 자연 포럼 방문 및 벨알프(Belalp) 여정과 힌터렌 라우터브루넨 계곡(Hinteren Lauterbrunnental) 여정을 준비했다.

그 외에도 세계 유산지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호기심 가득한 이들을 맞이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. 다양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유네스코 세계 유산의 날: <https://ourheritage.ch/event/world-heritage-days>

자료 제공: 스위스정부관광청 www.myswitzerland.com/ko